

키워드 분석 기반 ‘전통’ 용어의 트렌드 분석 (1920~2017) Exploring ‘Tradition’ Terminology Trends based on Keyword Analysis (1920~2017)

김민정*, 김철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주)동방문화유산**

Min-Jeong Kim(min-jeong.kim@sookmyung.ac.kr)*, Chul Joo Kim(eckehomo@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통’ 용어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과거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헌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해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전통’ 논의들이 신문기사에서는 어떻게 보도되어 왔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우리사회 ‘전통’ 용어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은 1920년대부터 2017년까지 미디어에 등장한 ‘전통’ 관련 신문기사 2,481,143건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시대별 신문 기사에 대한 빈도분석을 통해 ‘전통’ 관련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다. 또한 ‘전통’ 관련 키워드들간 연관어 분석을 통해 ‘전통’ 키워드의 연결 맥락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키워드들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군집화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통’ 관련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의미를 포착하고 시대별 ‘전통’이 담고 있는 사회적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중심어 : | ‘전통’ 용어 | 신문기사 | 빈도분석 | 연관어 분석 | 소셜네트워크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traditional’ terminology in Korea. We focus 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how media reports are conveying ‘tradition’ terminology in our society by apply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he analysis covered 2,481,143 news articles related to ‘tradition’ terminology that appeared in the media since the 1920’s. In this research, frequency analysis, association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were used on articles related to ‘tradition’ terminology from 1920 to 2017 by decade. By applying these data science techniques, we can grasp the meaning of social culture phenomenon related ‘tradition’ with objective and value-neutral position and understand the social symbolism which contains the tradition of the times.

■ keyword : | ‘Tradition’ Terminology | News Articles | Frequency Analysis | Association Analysis | Social Network Analysis |

1. 서론

한국문학에서 ‘전통’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개화기,

19세기말, 근대문학의 출발점, 신문학 운동 초기’ 등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의자로는 ‘최남선’, ‘이광수’, ‘임화’ 등을 들고 있다[1]. 또한 ‘전통’ 논의의 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013)

접수일자 : 2018년 09월 17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11일

교신저자 : 김민정, e-mail : min-jeong.kim@sookmyung.ac.kr

개에 관해서는 1920년대의 '시조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 국민문학과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열', '조선십', '겨레의 마음'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후 1930년대는 신문, 잡지 등의 저널리즘을 통해 '문화유산', '전승', '계승'이라는 용어들이 나타났다[1]. 이와 같이 한국문학사에서 '전통' 논의 전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통' 용어가 사용된 시점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임곤택은 한국현대문학사에 사용한 개념어로서의 '전통'은 'Tradition'의 번역어이며, 이는 T.S. Eliot의 에세이 『The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가 1933년 일본에서 번역된 후 1934년 8월 조선일보에 최재서가 소개한 것을 계기로 점차 사용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다[1]. T.S. Eliot는 '전통'이란 옛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식의 바탕 하에 창조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2]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논의의 바탕이 되고 있다.

반면 에릭 홉스봄 교수 외[3]의 저서 '만들어진 전통'에 따르면 통상 낡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낡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통'들은 실상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극히 최근의 것일 따름이며 종종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서 산업경제가 도래하고 도시화가 전개되면서 급변하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정치인들에 의해서 전통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속에서 '전통' 역시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강승연[4]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통의 문제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과거 역사와의 인위적인 단절을 경험한 이후 군사독재 정권이 1960년대 들어서고 1980년대까지 계속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전통'의 힘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뉴스 현실은 미디어의 선택, 배제, 강조 등의 방식을 거쳐 매개된 현실이며 프레임을 통해 사람들의 이슈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그러므로 전통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어떠한 의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시각으로 전통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은 과거 어떤 시대의 산물이 보존, 계승되었으며 전달의 과정 중에서 현재성과 가변성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전통 관련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 용어가 언론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지 '전통' 관련 1920년대부터 2017년까지 98년간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사용하여 '전통' 용어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우선 '전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으로 되어있다[6]. 또한 법령상의 용어에서 나타난 '전통'의 속성은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것, 오래되고 보존할 만한 것,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것,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다[7]. 그러므로 전통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한 민족이나 국가의 공유 습속에 대한 주관적 의식이 필요하며, 현재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8].

앞서 설명한 '전통'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논의를 고려할 때 '전통'은 문화의 개념에 역사적인 것이 첨가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9].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전통' 용어의 역사와 논의 전개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곤택[1]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전통'이라는 개념어가 최초로 쓰인 시기와 용례를 추적하였는데 처음 사용된 시점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전통의 논의 전개 방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까지는 3가지 국면으로 전개되는데 각각 전통단절론과 전통부정론, 전통론의 반성과 극복, 전통의 주체적 수용이 그것이다[9].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 독재정권이 계속되면서 전통은 자신들의 정권 창출을 합리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한편으로는 1980년대부터 민주화 운

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민중의 전통'이 진보세력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4]. 이러한 진보세력의 '전통' 담론은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천적이고 창조적 계승에 치중함에 따라 전통예술의 현대화, 대중화가 이루어졌다[10].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전통'이 변화해왔다는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의 문헌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해석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한 연구여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반영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11][12]. 본 연구는 기존의 내용분석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사용하여 신문기사인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용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이다. 우선, 빈도분석은 대량의 텍스트에서 고빈도로 출현하는 핵심 용어들을 도출하여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13]. 둘째, 연관어 분석은 특정 단어와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함으로써 특정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다[13].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초기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사람 대신 텍스트의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14].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1920년부터 2017년까지 98년 동안 발행된 신문기사들 중에서 '전통'을 키워드로 하여 추출한 신문기사들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신문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는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단,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현재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만 포함되어 있으며 네이버 뉴스는 13종의 일간지(경

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포함되어 있다. '전통' 키워드를 추출함에 있어서 1920년부터 1969년까지는 '전통'의 한자인 '傳統'을 검색하여 추출하였는데 이는 과거 신문기사에서 한자와 한글을 혼용 사용되면서 '全通', '全統', '電通', '前統', '傳通', '典統' 등 다양한 '전통'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전통'을 키워드로 추출할 경우 다른 의미의 '전통' 용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분석대상 기사수를 요약한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전통 관련 기사는 1920년대는 175건으로 많이 보도되지 않았으나 1930년대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가 폐간된 후 1945년 12월 1일에야 복간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국문학에서 '전통' 개념어의 사용은 1930년대로 추정되지만 신문기사에서는 이미 1920년대에 전통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석대상 : '전통' 용어로 추출한 연대별 기사수

연대	기사수	연대	기사수
1920s	175	1970s	10,644
1930s	650	1980s	20,991
1940s	384	1990s	38,820
1950s	1,324	2000s	425,780
1960s	2,352	2010s	1,980,023

본 연구는 수집된 2,481,143건의 신문기사를 연대별로 분류한 후 개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빈도분석시 TF(Term Frequency) 기반으로 도출하였다[12]. 빈도분석시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주요 단어들을 제거하였는데 예를 들면 1920년대 기사에서 '하야', '하얏다' 등의 고어와 우리나라 말의 조사인 '으로', '으로서' 등이 그것이다. 한글 빈도분석[15]을 위해서는 한글 사전에 등록된 명사 추출 함수를 사용하는데 '전통'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단어가 한글사전에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 해당 용어들을 사전에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관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TF를 기반으로 최다 출현 빈도로 선정된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용어문헌행렬을 구성한 후 ‘전통’ 키워드의 문헌출현여부 백터와 주요 단어의 문헌출현여부 백터간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전통’ 키워드와 상관관계 값이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키워드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전통’이 어떤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 보았다[13]. 마지막으로 최빈 키워드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주요 단어간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분류 하였으며[16] 하위 네트워크인 커뮤니티를 구분해보았다[17]. 빈도분석, 연관어 분석,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R-3.5.1 버전이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전통’ 관련 주요 키워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481,143건의 기사에서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연대별로 상위 20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연대별로 가장 많은 빈도로 랭크된 키워드는 ‘전통’이므로 [표 2]에는 ‘전통’을 제외한 상위 20개의 키워드

와 해당 빈도수를 표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차상위로 랭크된 키워드는 연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차상위 키워드는 ‘조선’이었다. 이는 1897년 고종이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황제의 지위에 올랐지만[18]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국호가 ‘조선’으로 다시 복귀되었기 때문이다[19].

1920년대에 ‘인습’, ‘민족’, ‘사회’, ‘문화’, ‘과거’, ‘생활’, ‘역사’가 많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친일 사관에 따라 과거의 전통과 인습을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대에는 ‘문학’, ‘현대’, ‘문화’, ‘예술’, ‘영화’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는데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 전개로 민족문화유산의 탐구와 계승에 관련된 작업이 저널리즘의 각광을 받으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20]. 1940년대는 폐간으로 인해 신문기사 수는 적지만 ‘계승’, ‘자유’, ‘독립’, ‘평화’ 등 해방으로 인한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또한 ‘미국’과 함께 ‘소련’도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미소진영의 대립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으면서 두 나라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2. ‘전통’ 관련 기사에서 나타난 연대별 최빈 키워드와 빈도수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조선(46)	조선(136)	조선(68)	역사(143)	한국(261)	문화(328)	문화(1049)	문화(976)	문화(5412)	시정(11151)
운동(17)	문학(60)	문화(52)	문화(91)	역사(187)	한국(296)	한국(678)	한국(594)	한국(4432)	한국(8108)
인습(16)	현대(51)	역사(51)	미국(91)	문화(137)	역사(149)	대통령(376)	현대(338)	세계(2387)	문화(6734)
민족(15)	역사(50)	민족(47)	민족(74)	세계(133)	현대(144)	현대(252)	음식(294)	시장(2158)	세계(4538)
사회(14)	문화(44)	미국(29)	세계(71)	대학(104)	사회(125)	음악(248)	서울(279)	산업(2062)	기업(3740)
문화(13)	문제(42)	세계(23)	한국(65)	미국(101)	세계(123)	세계(195)	공연(244)	기업(1927)	현대(3064)
과거(12)	정신(37)	계승(20)	자유(64)	사회(97)	민족(107)	사회(189)	음악(243)	미국(1877)	지역(3055)
생활(11)	미국(32)	국민(20)	계승(53)	정치(94)	발전(89)	역사(183)	세계(235)	체험(1694)	미국(3042)
일본(11)	생활(30)	자유(20)	현대(52)	현대(86)	공연(89)	공연(177)	공예(233)	행사(1647)	산업(2994)
사상(10)	세계(29)	문학(19)	정신(51)	자유(76)	교수(82)	전통예술(177)	현대(1584)	경제(2935)	
역사(10)	예술(29)	문예비평(18)	동양(47)	영국(75)	미국(82)	국악(171)	생활(162)	공연(1537)	역사(2453)
문제(9)	자유(26)	정신(18)	국민(42)	일본(68)	정신(80)	공예(165)	축제(154)	지역(1440)	사회(2432)
문학(9)	일단(25)	독립(17)	문학(42)	국민(67)	일본(79)	우리나라(160)	민속(151)	역사(1382)	국내(2401)
미국(9)	일본(25)	소련(17)	과거(41)	신문(67)	생활(75)	민속(155)	전통식품(151)	일본(1381)	정부(2357)
사실(9)	주의(25)	운동(17)	문제(41)	발전(64)	평화(155)	우리나라(141)	음식(1352)	방식(2271)	
무시(8)	과거(24)	전망(16)	영국(40)	우리나라(64)	문제(74)	국민(149)	국악(138)	사업(1292)	체험(2257)
발전(8)	사회(24)	문제(15)	우리나라(37)	민족(63)	창조(74)	연구(148)	행사(136)	경제(1272)	사업(2254)
정신(8)	영화(24)	평화(15)	민주주의(35)	자랑(63)	우리나라(73)	예술(138)	개발(135)	사회(1227)	서울(2103)
주의(8)	영국(24)	국가(14)	발전(34)	확립(63)	국민(71)	올림픽(128)	일본(132)	개발(1199)	일본(2050)
극단(7)	시대(21)	생활(14)	사회(33)	음악(62)	전국(70)	작품(118)	작품(128)	중국(1165)	중국(2018)

1950년대부터는 더 이상 '조선' 키워드는 추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명으로 '한국'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1950년대에는 '미국', '영국', '민주주의' 등의 키워드가 추출되었는데 전통을 계승하면서 세계사적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창조하자는 움직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21]. 1960년대는 '역사', '문화', '사회'와 같은 전통의 개념에 관련된 키워드와 함께 '정치', '국민', '발전', '우리나라', '자랑', '확립' 등과 같은 키워드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1960년대의 전통 논의는 전통의 부정이나 계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위기에 대한 극복기제로 정체성 확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9]. 1970년대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음악' 키워드가 새롭게 추출되었는데 이는 '전통' 관련 분야가 다양화되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또한 '창조'라는 키워드가 도출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들어선 군사 독재정권이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1970년대에 '전통'을 선별하고 창조하였음을 볼 수 있다[4].

1980년대에는 '대통령', '공연', '평화', '올림픽'이 상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는 제5공화국이 과거의 정권처럼 전통을 수단화했음을 의미한다[22]. 그러나 '전통예술품' 같은 전통 관련 과생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음악', '공연', '국악', '민속' 등과 연관됨을 유추할 수 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에 비해 '전통'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음식', '축제', '전통식품', '행사'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고 있으며 최빈 키워드로 추출된 것들이 모두 문화적 영역과 관련된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시장', '산업', '기업', '사업', '경제'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전통' 관련 논의의 변화로써 과거의 '전통' 이데올로기가 '정치'에서 '산업'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문화산업 속에 묻혀버렸음을 의미한다[4]. 특히 2010년대의 차상위 키워드는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과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등의 영향으로 1996년부터 재래시장 육성정책이 시작되고 2005년 3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23], 2010년 이 법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24], 2010년부터는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대별 최빈 키워드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 용어의 변화양상 및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극도의 사상통제에 따른 절망의 시대 속에서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탈출구로 '전통'이란 의제를 설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전통' 관련 기사 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 관련 논의의 도입기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로 '전통'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해방 이후의 '전통'의 계승·발전 논의에서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권 유지의 정당성을 위한 '전통'의 선별 및 수단화 등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전통' 논의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용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전통은 더 이상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 문화적 영역으로 정착되기 시작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드디어 우리사회의 '전통'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전통' 관련 논의는 정착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더 이상 전통은 문화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의 '전통' 논의는 확산기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기	1920~1940년대	조선, 인습, 과거, 민족, 문화, 역사, 계승, 독립
변용기	1950~1980년대	한국, 역사, 문화, 계승, 발전, 창조, 자랑, 권위, 대통령, 올림픽
정착기	1990년대	문화, 현대, 음식, 공연, 음악, 공예, 생활, 축제, 민속, 국악
확산기	2000~2010년대	시장, 산업, 기업, 사업, 체험, 행사, 지역, 세계, 경제, 정부

그림 1. '전통' 용어의 변화 양상 및 키워드

2. '전통' 키워드와 연관어

다음으로 연관어 분석을 통해 연대별로 '전통' 키워드와 연관어를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10개씩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전통'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1920년대는 '인습',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역사',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문화', 2010년대는 '시장'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20년대에 연관어도 도출된 단어는 '문화', '사상', '역사', '민족', '시대' 등과 함께 '인습', '과거', '노력' 등의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 시대의 '전통'을 대하는 시각은 과거의 전통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인습과 같이 타파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계승', '자랑' 등 연관어가 도출된 것으로 보건대 '전통'에 대해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했던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공예', '음악', '음식', '의상' 등의 연관어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전통'의 논의가 개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통은 문화적인 논의를 벗어나 산업으로 진화함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연관어를 보면 '산업', '체험', '활성화', '지역', '공연' 등이 있는데 지역별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와 음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개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010년대는 '문화' 보다 '시장'이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2]의 연도별 최빈 키워드 결과에서도 '시장'이 차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것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논의가 201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 주요 키워드간 연결망 특성

[그림 2]는 연대별로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간 연결되는 소셜네트워크 그래프와 커뮤니티로 표현된 하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 그래프는 특정 텍스트 단위에서 공동으로 출현한 단어의 집합적 상호 연결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언어학적 의미에서 의미적 근접성을 가리킨다. 또한 하위 그래프는 walktrap 알고리즘[25]를 사용하여 커뮤니티를 나타낸 것으로 무작위 행보(random walks)를 수행함으로써 조밀하게 연결된 하위 그래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무작위 행보라는 개념은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대신 커뮤니티 내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1920년대 연결망 결과를 보면 '전통'과 '정신', '민족', '문화', '운동', '역사', '노력', '조선', '인습' 등이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7개의 하위 그래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하위 그래프 중 크게 2개는 '전통'의 개념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1930년대의 경우 '전통' 주변에 더 이상 '인습'이란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6개의 하위 그래프로 구분되었다. 가장 큰 커뮤니티는 전통의 개념적 영역이며 나머지는 '문학', '예술', '문학적', '언어', '기교', '작품' 등 키워드가 커뮤니티로

표 3. 연대별 '전통' 용어와 연관어

1920s	1930s	1940s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인습	역사	역사	역사	역사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시장
문화	계승	민족	계승	자랑	역사	한국	음식	산업	문화
사상	과거	계승	민족	권위	계승	공예	공예	음식	한국
역사	기교	국가	국가	문화	권위	음악	한국	역사	역사
민족	시대	문화	우리나라	확립	자랑	현대	현대	체험	음식
시대	자랑	세계	고유	계승	현대	음식	강좌	자랑	체험
과거	재래	자랑	과거	미국	우리나라	보존	음악	의상	현대
노력	자연	노력	문화	발전	고유	소개	의상	한국	활성화
사실	창조	단일민족	자랑	사실	등용문	계승	과학	현대	지역
주장	노력	문예비평	확립	고유	발전	우리나라	생활	계승	공연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문학에서 전통 관련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20][26]. 1940년대의 연결망 결과에서는 '전통' 주변에 '세계', '민족', '예술', '정치', '역사' 등의 단어가 가까이 연결되어 있고 5개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커뮤니티 중 왼편 아래쪽에는 '독립' 관련 커뮤니티가 왼편 위쪽에는 '민주주의', '자유', '평화' 관련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며 '문예비평' 관련 커뮤니티가 별도로 오른편에 형성되었다. 이는 1934년 우리 문학에서도 전문적인 비평가가 등장하면서 1940년대에는 비평분야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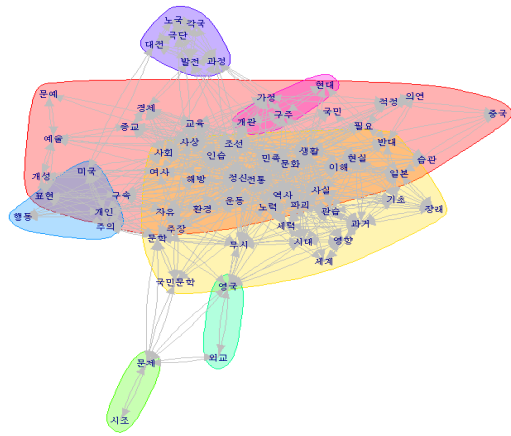
1950년대의 경우 1940년대와 크게 다른 형태를 보이는 않지만 '의미' 키워드가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되는데 '전통', '역사', '의미', '확립', '대학', '우리나라', '과거', '계승', '운동'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건대 국가 차원에서 전통의 의미와 계승에 대한 논의가 만들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21]. 1960년대 경우는 1950년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 다만 '전국', '본사', '학생' 등의 키워드가 별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사라져가는 전통민속예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공보부 주최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으며[28], 또한 신문사 후원으로 전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경연대회 등의 홍보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보여진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박대통령', '대통령', '국민', '민족', '정신', '창조', '발전', '계승', '정치', '경제', '개발'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으며 이때 전통의 창조 또는 선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29]. 또한 '동아', '신문' 등과 '전국', '학생', '등용문', '음악' 등의 키워드들이 연결되고 커뮤니티도 형성하는데 이는 1961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주최했던 동아음악콩쿠르에 대한 기사가 많이 홍보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역시 '전대통령', '대통령', '정치', '정부', '평화', '국민', '확립' 등의 키워드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어 이때 역시 '전통'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2]. 1980년대의 특이할 만한 것

은 '전통예술', '전통무용' 등 전통 관련 파생어들이 나타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음악', '국악', '무용',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키워드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올림픽'과 전통의 개념이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5공화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의 문화예술 부문에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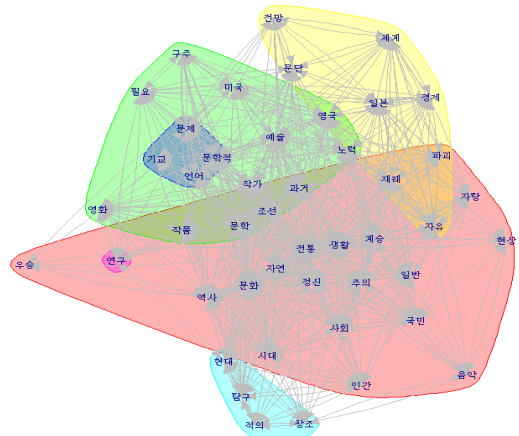
1990년대의 연결망을 보면 '전통'이 과거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적 영역에서 정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에서 분류한 것처럼 전통이 문화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정착기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의 키워드들은 7개의 커뮤니티로 구분되는 이는 전통의 다양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뮤니티 역시 겹치는 부분이 거의없이 하위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 관련 파생어는 1980년대에 이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부터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시켜 의식주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30].

2000년대의 경우 '산업', '사업', '기술', '개발', '지원', '연구' 등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와 '대통령', '인터넷', '시장', '기업', '투자', '회사', '제품' 등의 키워드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이 1990년대의 문화적 영역에서 정착을 넘어 경제적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연결망 역시 2000년대와 유사한 연결망을 보이고 있다. 4개의 커뮤니티로 구분되었는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커뮤니티로 2000년대에는 이 영역이 2개였는데 2010년대에 와서는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통적으로' 라는 키워드가 연결망에서 등장하였는데 이는 '전통'의 개념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1세기 우리의 전통문화정책이 단순한 보존 차원을 넘어 전통과 현대가 결합하고 우리만이 아닌 세계인의 정서에 조화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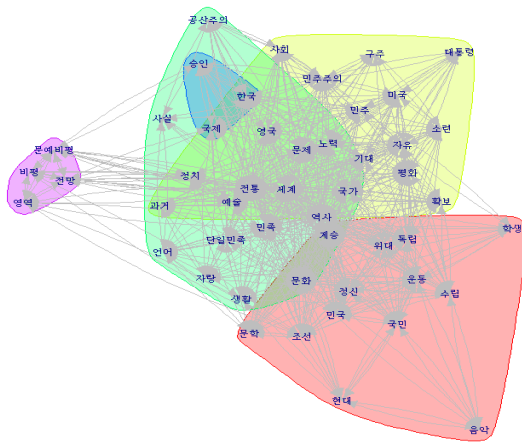
192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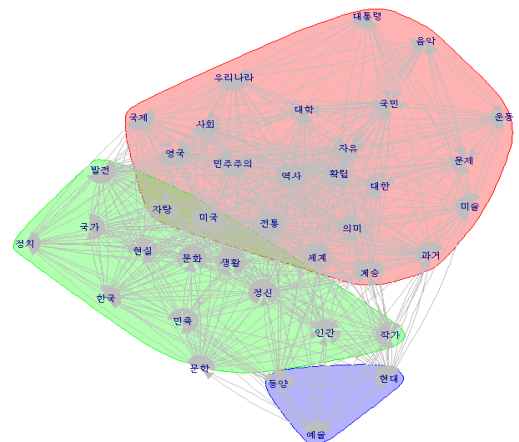
193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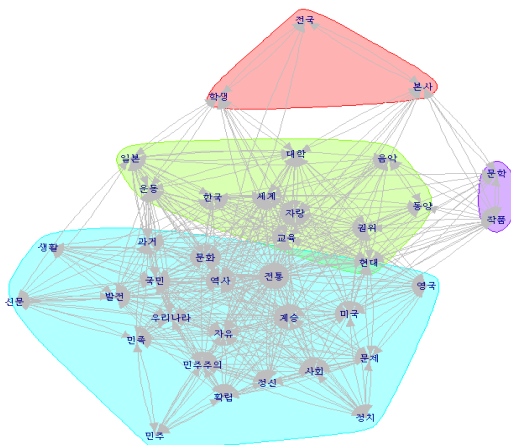
194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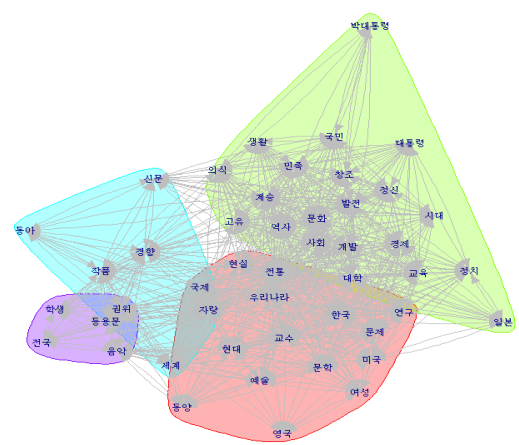
1950s



1960s



197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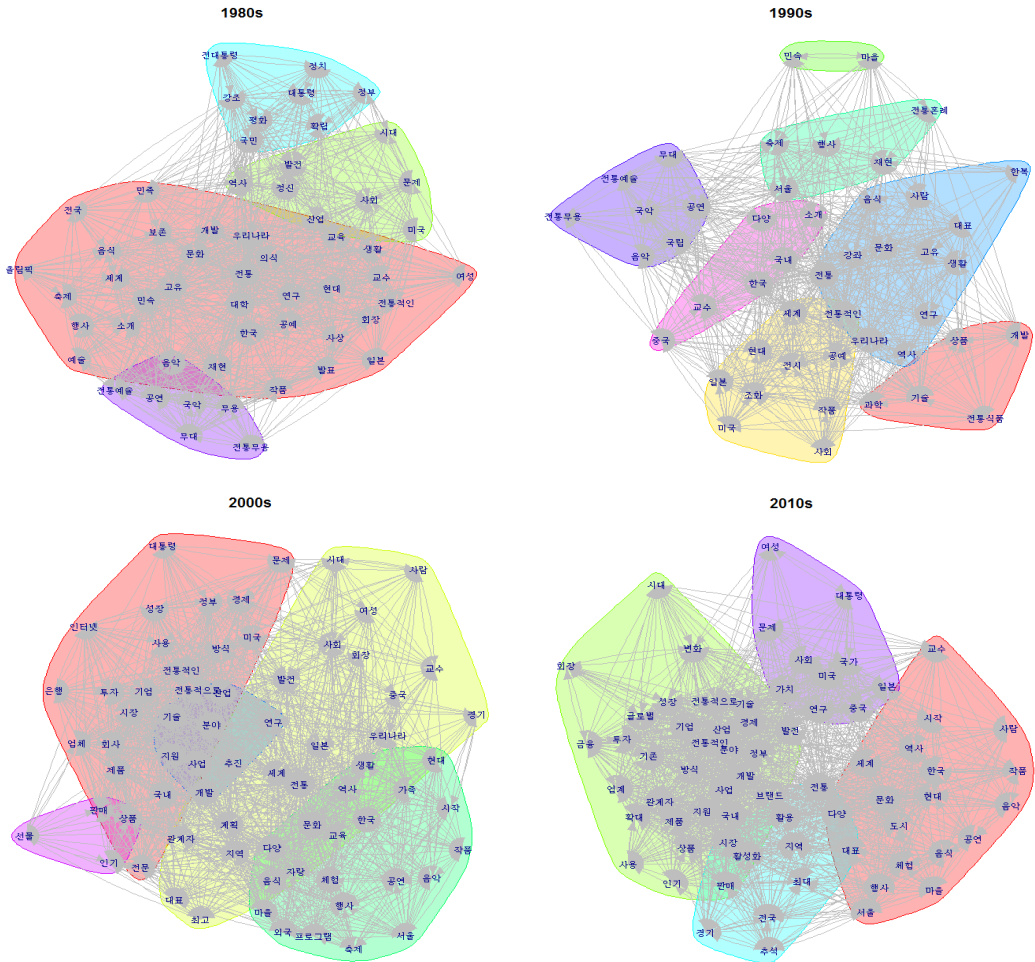


그림 2. 연대별 주요 키워드간 연결망과 커뮤니티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20년대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신문 기사 중에서 '전통'을 키워드로 하여 추출한 신문기사에 대해 연대별로 텍스트 마이닝 및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전통' 용어의 트렌드 변화를 실증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 키워드로 수집된 언론보도 기사에서 최빈 단어로 추출된 단어 결과는 연대별로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전통' 용어도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키워드들에서는 식민주의 시대 민족 정체성 확보를 위한 탈출구로 전통이란 의제를 도입하여 논의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해방 이후의 전통의 계승·발전 논의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위한 '전통'의 선별 및 창조 논의로 변화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추출되었다. 1990년대의 키워드는 주로 문화적 영역 위주로 우리사회의 '전통'이 문화적으

로 자리잡았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2000년대부터는 문화적 영역에서 더 나아가 전통 논의가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추출된 키워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통'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도출한 결과 1920년대에는 '인습' 키워드가 가장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통은 타파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임을 의미한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의 극도의 사상통제 하에서 과거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타파해야 하는 대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전통' 키워드는 '역사' 키워드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며 점점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는 '문화'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1980년대부터는 문화 관련 다양한 키워드들이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전통문화가 많이 논의됨을 볼 수 있었다. 2010년대에는 '시장'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도출되어 전통문화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대별로 핵심 키워드간 네트워크 분석과 하위 커뮤니티 분석결과 '전통' 관련 신문 기사의 키워드들이 연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대별로 '전통' 용어가 시대를 반영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통은 선별되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통의 창조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전통' 관련 문헌의 해석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텍스트 마이닝 및 최빈 키워드에 대한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내용분석 방법과는 달리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98년간 보도된 전통 관련 기사들에서 단어의 통계량을 계산하고 이를 소셜네트워크분석과 연계해 우리나라에서 전통의 특징적인 메시지의 변화를 파악한 실험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물은 언론에 드러난 핵심키워드들을 통해 전통 개념어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고 정착 및 변화되는 과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전통 관련 연구논문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신문기사와 연구논문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 줌으로써 연구논문 역시 시대의 변화 양상에 따라 주제나 키워드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임곤택, “‘전통’ 개념어의 기원과 전통인식,” 비평문학, 제39호, pp.323-345, 2011.
- [2] T. 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https://www.bartleby.com/200/sw4.html>
- [3] 에릭 홉스봄, 사라 모건,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4] 강승연, *한국 디자인에서의 ‘전통 담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5] R. M.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 of Communication*, Vol.43, Issue 4, pp.51-58, 1993.
- [6]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7] 이근용, 김영수, *지역방송 콘텐츠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8] 고병익, *동아시아사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 지성사, 1996.
- [9] 김영임, *전통단절론 연구 - 1930년대와 戰後 전통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0] 이영미, *총론 in 한국현대 예술사대계1970년대 IV*, 시공사, 2004.
- [11] 장남경, 김민정, “토피모델링을 이용한 국내 패션디자인 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6호, pp.415-423, 2017.
- [12] 김민정, 김철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승례문 관련 기사의 트렌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474-485, 2017.
- [13] Package ‘tm’ - CRAN-R.
- [14] S. Wasserman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15] Package 'KoNLP' - CRAN-R.
- [16] Package 'sna' - CRAN-R.
- [17] Package 'igraph' - CRAN-R.
- [18]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0월 13일.
- [19] 김삼용, “국호로 보는 분열과 통합의 한국사,” 인물과 사상, 통권 115호, pp.208-217, 2007.
- [20] 황중연, “1930년대 고전부흥운동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11권, pp.217-260, 1988.
- [21] 황병주, “195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민주주의 인식-조병옥과 유진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89호, pp.215-256, 2008.
- [22] 김지연, 전두환 정부의 국풍81: 권위주의 정부의 문화적 자원동원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3] 김용호, 송경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재래시장 활성화 실천방안 연구,” 경영정보연구, 제18권, pp.91-113, 2006.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5] P. Pons and M. Latapy, “Computing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using Random Walks,” J. of Graph Algorithms and Applications, Vol.10, No.2, pp.191-218, 2006.
- [26] 우은진, “1930년대 ‘전통’인식과 시조담론,” 한국문학논총, 제63집, pp.201-235, 2013.
- [27]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28] 임재혜,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비판적 검토와 생산적 대안,” 비교민속학, 제13권, pp.27-92, 1996.
- [29] 김동노, “박정희 시대 전통의 재창조와 통치체제의 확립,” 동방학지, 제150권, pp.319-353, 2010.
- [30] 정갑영,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제7권, pp.103-123, 1995.

저자 소개

김민정 (Min-Jeo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User & Data Analysis

김철주 (Chul Joo Kim)

준회원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2015년 1월 ~ 현재 : (주)동방문화유산 대표

<관심분야> : 고건축 시공, 전통건축